

“성범죄자 작품이 영화상 최다 후보” 논란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프랑스 원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86·사진)의 최신작 ‘장교와 스파이’가 ‘프랑스의 오스카’로 불리는 세자르 영화상에서 최다 부문 후보로 지명돼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미국을 떠나 지금까지 도피 중이다. 스위스에서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9일 프랑스영화예술아카데미에 따르면 ‘장교와 스파이’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45회 세자르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1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영화는 19세기 프랑스군의 유대계 장교 알프레드 드레뤼스가 독일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된 ‘드레뤼스 사건’을 다룬 역사물이다.

현지 개봉 직전 폴란스키 감독의 성범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작품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일기도 했다. 사진작가 발랑틴 모니에가 지난해 11월 일간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10대 때 폴란스키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프랑스 예술인과 지식인들이 무조건 폴란스키를 옹호해 왔다.”고 폭로했다.

앞서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죄인정 조건부 감형협상이 법원에서

여성단체 ‘오제 르 페미니즘’은 “도주한 강간범이자 아동 성범죄자를 치하하는 건 희생자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세자르상 조직위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영화아카데미의 알랭 테르지앙 회장은 “후보 선정에 윤리적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이미 150만 명의 프랑스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고 말했다

온리원오브, 신곡 영어작사 공모 상금 10만 달러

신인 보이그룹 온리원오브가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최근 발매한 신곡의 영어 가사를 지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

소속사 RSVP는 지난 30일, 이날 정오에 발매된 온리원오브 신곡 ‘도라 마르’ (dOra maar) 영문 가사를 공모해 우승자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온리원오브는 채택된 가사로 영어 버전 ‘도라 마르’를 녹음해 전 세계에 발매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유튜브에 자신이 작사한 영어 가사를 ‘OnlyOneOf dOra maar contest’를 제목으로 해 2월 1일~3월 31일에 올리면 된다. 해시태그(#)로는 ‘onlyoneof’와 ‘doramaar’를 달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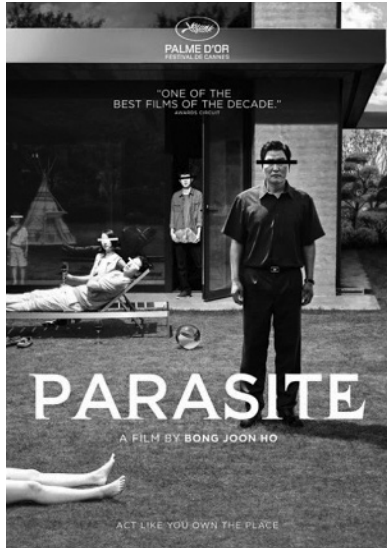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팀으로도 응모할 수 있다.

소속사는 “전 세계 음악 팬과 함께 듣는 것 이상의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고 싶었다.”며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온리원오브는 지난해 5월 데뷔한 7인조 그룹이며 미니앨범으로 ‘닷 포인트 점프’ (dot point jump), ‘라인 선 굿니스’ (line sun goodness)가 있다.

‘기생충’ 북미 상영관 1천개 돌파

영화 ‘기생충’ (감독 봉준호)의 북미 지역 상영관 수가 처음으로 1천개를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11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3개 상영관에서 선(先) 개봉한 이후 최다 상영관 수다.



에서 선보인 모든 역대 외국어 영화 가운데 흥행 7위에 해당한다. 이 추세라면 6위인 ‘아멜리아’ (3천322만5천499달러)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개봉한 지 100일이 지난 ‘기생충’은 한때 상영관 수가 620개까지 늘었으나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달 6일 골든 글로브 시상식을 전후해 상영관 수가 다시 급격히 늘고 있다.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각본·편집·미술·국제영화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 이외에 1~2개 부문에서 더 상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생충’ 상영관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골든글로브를 비롯한 각종 북미 시상식을 휩쓴 데다, 오는 9일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후보에 지명되면서 입소문을 탄 덕분이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기생충’ 북미 지역 상영관은 지난 26일 기준 1천60개로 집계됐다. 박스오피스 매출도 3천91만2천648달러에 달했다. 역대 북미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역대 흥행 수익 1위 기록이며, 북미

1301호 숫자퍼즐 정답

9	3	2	1	4	6	8	5	7
1	4	5	2	8	7	9	6	3
6	8	7	3	5	9	1	2	4
2	5	9	6	7	4	3	8	1
4	6	3	8	1	5	2	7	9
7	1	8	9	2	3	5	4	6
3	2	1	4	6	8	7	9	5
8	7	6	5	9	1	4	3	2
5	9	4	7	3	2	6	1	8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악연(惡緣)을 만나 후회하는 재혼(再婚)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남녀(男女)가 만나는 부부(夫婦)인연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각별한 인연(因緣)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지만 간혹 악연(惡緣)을 만나 고초를 겪기도 한다. 몇 년 전에 60대의 사업가와 배우자 문제로 상담을 했는데 그 분은 젊어서 만난 부인이 있었지만 몇 년 전에 부인과 사별(死別)하고 혼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분은 젊어서부터 사업을 꾸준히 일구어 왔고 먹고사는 문제는 없는 상태였지만 혼자 지내고 있으니 언제나 재혼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찾아온 것이다. 필자가 그분의 사주팔자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선생님께서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이전에 분명히 좋지 못한

인연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좋은 인연이 아니니 그 때만 조심하고 절제를 하면서 잘 넘긴다면 반드시 3년 후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해 주고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분에 대한 것은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전에 원장님께서 당부한 말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기는 했는데 작년 초에 외로운 마음에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해 보이고 이야기도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몇 번을 만나다가 급하게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국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쳐서 이곳에 와서 신분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를 만난 것입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하는

것은 완전히 제멋대로고 웬 돈을 그렇게 밝히는지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푸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건넌 이야기는 “선생님께서 올해까지만 잘 참으셨다면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참한 여자를 누가 예전부터 소개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급하게 서두르다가 완전히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하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다. 미리 필자가 당부를 했지만 악연(惡緣)을 선택한 것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